여당은 어디갔나?

16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가 열려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정청래(왼쪽부터), 김현, 박범계, 박영선,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국정원 국조 '반쪽회의'…野 특위 단독 개최

김현·진선미 특위 위원 제척 입장 '팽팽'

보름간 허송…민주, 여당 성토속 깊은 고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배제 문제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국조 특위는 지난 2일부터 가동했으나, 여야는 16일 현재까지 보름 동안 특위 구성조차 결론 내지 못하고 있다.

모두 45일간의 국정조사 기간 가운데 이미 3분의 1을 허비함에 따라 국정조사가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된 이해 당사자라면서 두 위원을 특위 위원에서 빼야 국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떤 주장을 하든 우리의 방침은 전혀 변함이 없다"면서 "두 위원을 교체해 하루빨리 특위를 정상화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국조 특위 단속소집과 관련, "여야 간 합의 없이 소집했으니 새누리당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이날 오후 특위 회의를 단독 소집했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새누리당을 집중 성토했다.

신기남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대로라면 정보기관, 경찰이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달라는 국민의 여망은 또다시 좌절되고 말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 닥쳐올 국회의 신뢰추락, 국민의 정치불신은 차마 상상하기조차 두렵다"고 말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현 의원은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해 사퇴불가 의사를 재확인했다. 진선미 의원도 "단언컨대 저는 여성(국정원 여직원)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이 무고한 야당 의원에게 제척 사유를 부과하며 국민의 여망인 국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정조사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빠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국조는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김현·진선미 두 의원도 사퇴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 지도부에서는 두 의원의 결단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날까지는 난망한 상황이다.

한 최고위원은 "사퇴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생각해야 하는데 두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듯하다"며 "더욱이 이를 조정해야 할 일부 중진의원들까지 나서 기름을 붓고 나섰으니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욱이 당 지도부는 자칫 강제 조정에 나설 경우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의 반발로 적전 분열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머뭇거리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의 두 의원에 대한 제척 주장이 정치공작에 지나지 않지만 국조가 무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많아 김·진 두 의원이 결국 당을 위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친노의 귀환'

문재인·이해찬·정세균 잇단 강경발언

당내 주도권 다툼 재점화 우려도

'국정원·NLL(북방한계선) 정국' 속에서 민주당 내 친노(친노무현)·옛 범주류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 패배, 이어 전당대회 패배 등을 거치며 변방으로 밀려났던 세력이 새누리당과 강대강 대결구도 속에 당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4 전당대회를 통해 전면적 세력교체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나타난 것이어서 또다시 당 분란을 조장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노 진영은 국정원 정국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문재인 의원을 구심점으로 '친문'(친문재인)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대여 강경투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노의 '좌장'격인 이해찬 전 대표도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여기에 한동안 '정중동' 행보를 보여온 범주류의 대표적 인사인 정세균 상임고문도 16일 "장외투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특히 현 당 지도부를 겨냥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양측의 불협화음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상황인식의 괴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친노는 여권과 강하게 대결하면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현 지도부는 민생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번 사안에 매몰될 경우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또다시 이념대결의 구도에 빠져 총·대선 패배의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한길 대표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다는, 친노는 전당대회에서 당심을 얻고 승리한 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각각 받고 있다.

때문에 친노·범주류에 비해 응집력이 약한 비주류의 '태생적 한계'가 이번에 노출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비주류 일각에서는 "친노·범주류의 지도부 흔들기"라며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다.

전남지역 한 의원은 "현 지도부가 현 정국을 강력하게 이끌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자숙해야 할 친노 세력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결코 당의 앞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귀국 9월로 늦춘다

"독일 총선 등 지켜보고 돌아가겠다"

독일에 체류 중인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귀국을 한달반 정도 늦춰 오는 9월말께 돌아오기로 했다.

손 고문은 16일 싱크탱크 역할을 해온 '동아시아미래재단(이하 재단)' 회원 등 지지자 2만여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애초 8월 중순께 귀국하려 했으나 생각이 달라졌다"며 "처음에는 독일의 복지·교육·노동·환경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이 정치라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면서 독일 정치를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9월22일 치러지는 독일 총선을 지켜보고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 고문은 또 "국내 정세가 어지럽고 민주당은 더욱 어려운데 밖에서 뭐 하고 있느냐고 조바심을 내실 분들이 있겠지만 쉽지 않은 기회인 만큼 길게 보고 넉넉하게 호흡하면서 저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제가 취할 자세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 고문은 특히 "1949년 서독 정부 수립 이래 총리가 8명밖에 나오지 않는 놀라운 정치적 안정은, 불안해 보이기만 한 연립정부 체제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각기 다른 이념과 정책을 가진 여러 정당이 한 정부에 동거하면서 대립하는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하나로 녹여내는 게 독일 정치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다양성 속의 통합'이야말로 우리가 독일에서 배워야 할 한국 정치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장병완 "국채발행 통한 세입추경 반대"

민주당은 16일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10조원 가까이 덜 걷혀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국채발행을 통한 세입 추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채발행으로 세입 추경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수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5월까지의 세수 감소분 9조원 중 절반인 4조3000억원 정도는 법인세 감소 때문"이라며 "이는 명백히 새누리당 정권이 밀어붙인 부자 감세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분양완료
201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지상2층	레스토카페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	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지상1층	지상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지상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만원
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	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	지상3층~4층	영화관 (입점확정)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널드), 드롭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